



거창고등학교
학보사

185th 학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7]

발행인 김예진
주간 손희정
편집국장 이관우



교장선생님 말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1963년에 링컨 기념관 앞에 모인 25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걷는 날을 꿈꾼다고 외쳤습니다. 후에 “I Have a Dream”이라고 유명해진 연설의 한 구절입니다. 흑인은 투표권조차 행사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사회의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 매우 파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느 날 복도에 나가보니 여러분들이 적어 낸 각자의 꿈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을 적은 친구들보다는, 인생 전체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적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의외로 진지하게 적어 낸 친구들의 꿈을 보면서는 속으로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저의 꿈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어깨 들썩이게 재밌고 즐겁지는 않아도, 오히려 힘들고 지치는 날이 더 많아도,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봅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좋아하는 작가의 책과 함께 하는 토요일 오후, 해 질 녘 운전하다가 바라보는 노을, 벚꽃나무 아래에서의 긴 저녁 산책,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밤에 시험공부에 지친 고3들을 위해 어묵 꼬치를 장만하는 것, 대개는 비용이 별로 들지 않는 소소한 것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의 꿈이었던 정치부 기자나 외교관이 되지 않았어도, 저는 삼십 년 가까이 누려온 이 직업으로 인해 충분히 행복합니다. 긴 여정을 달려오는 동안 실수도 많았지만, 오늘도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며,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꿈꿉니다.

오랜만에 종이 학보를 발행합니다. 누군가의 꿈이 모여졌으므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모습을 갖추는 것이겠죠. 거창고등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꿈을 발견하고, 서로 그것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살아갑시다. 저도 그 중의 하나이고 싶습니다. 꿈이 있는 한 청년이니까요.



거창고등학교장 김예진

학보사에 대하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 사라졌었던 학보사가 부활하여 다시금 여러분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보사가 생소할 여러분을 위해 저희 학보사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보사의 역사와 활동, 구성을 알아보며 함께 학보사의 매력에 빠져봅시다.

학보사는 지난 52년간 총 184회의 학보 발간을 통해 여러분께 교내외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며 거창 고등학교만의 소통의 매체를 넘어 학교의 한 역사를 자리 잡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학교의 여러 행사와 사건들이 기록된 학보는 소중한 거창고등학교의 역사를 오랫동안 간직하며 졸업생들에게 언제든 돌아볼 수 있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난 3년간 긴 역사를 뒤로하고 잠시 사라졌었지만, 올해부터 학보사가 다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올해 학보사는 일요일마다 인스타그램에 기사를 올려 학생 여러분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며, 한 학기에 한 번 학보를 발행하여 학생 여러분의 학창 시절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기사는 시험 기간과 학보 발행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주간으로 연재되며 시사,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그리고 학기 말마다 발간되는 학보는 한 학기 동안의 사건들과 교생 선생님을 비롯한 다양한 인터뷰 기사, 여러 특집 기사로 구성되어 지난 학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글과 색다르고 재밌는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발간된 학보는 학생 여러분에게 한 부씩 배부되며 반마다 한 부씩 비치되고 샛별초등학교와 샛별중학교에도 전달됩니다.

학보사는 기자부, 교정부, 편집부, 삽화부 총 네 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자부는 기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해 교내외 이슈를 전합니다. 교정부는 기자부가 작성한 기사를 검토하고 맞춤법, 문맥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여 질 높은 기사가 완성되도록 돕습니다. 학보에 실릴 기사가 완성되면 편집부가 기사와 콘텐츠를 편집하고 레이아웃을 디자인하여 학보의 형태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삽화부는 학보 표지와 속지를 꾸며 학보를 시각적으로 풍성하게 가꾸어 줍니다. 네 부서는 회의를 통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글을 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보사는 학보사만의 파트너 제도 ‘파트’와 주기적인 MT 등으로 친밀한 선후배 관계를 형성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기에 더없이 좋은 동아리입니다. 직접 수준 높은 학보를 만들며 한 해 동안 추억과 우정을 쌓고 싶다면 학보사에 지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년의 단절을 끊고 학보사가 더 체계적으로 돌아왔습니다. 52년의 역사를 이어가며 학생 여러분께 유익하고 정확한 기사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식

3월 4일 거창고등학교가 새롭게 74기 학생들을 맞이했다. 3월 3일에 집을 떠나 처음으로 호실에 발을 들였을 때 느끼는 기대감과 어색함이 뒤섞인 기류, 거창고등학교의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느껴 봤으리라 생각한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입학식은 다음날 선배님들의 축하와 입학생들의 긴장과 기대 속에 진행됐다. 부모님들도 온라인으로 현장을 지켜보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셨다. 오종신 목사님께서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이 학교에 모여 입학식을 치르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 말씀하셨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 거창고를 만드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라는 응원도 아끼지 않으셨다. 마지막으로 멋지고 예쁘신 거고 선생님들의 소개를 끝으로 2024년의 입학식이 마무리되었다.



신입생 OT

입학식 이후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본교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신입생 OT는 해바라기 학생회의 주관으로 이번에 새로 거고에 들어오게 된 후배들을 위해 알차게 준비되었다. 거창고의 다양한 행사들과 문화나, 레드라인과 같은 거고인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짧은 연극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알려주었다. 학생회 분들께서 중간의 웃음 포인트를 넣어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많은 1학년 사이에서는 정의준 선배님의 '벌써 12시'가 임팩트 있었다고 회자된다. 마지막에는 신입생들 서로의 재능과 끼를 엿볼 수 있었던 장기 자랑 시간이 있었다. 쟁쟁한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와 다양한 장르의 곡들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신입생 OT는 이렇게 친구들의 장기 자랑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예배

2014년 4월 16일 참혹하고, 안타까웠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가 되어 거창고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예배가 있었다. 기독학생회는 대화 형식의 공연을 통해 예배를 재치 있게 이끌어갔다. 예배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관련 진상 규명의 진척도와 상황 설명, 유가족분들과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조사가 4년간 정체되고, 그 이후로도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답답하다고 느꼈다. 세월호 사건 유가족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하셨던 김 영명 목사님은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함으로써 세월호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기억의 가치를 일깨워주셨다. 이후 기독학생회에서 세월호 추모 헌정곡인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불렀다. 모두가 세월호를 기억하며 집중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난주간 기도회

4월 10일 목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3일간 점심시간에 고난주간 기도회가 열렸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일주일간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서 비롯된 고난주간 기도회는 이때에는 예수님이 약자를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형을 받으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의 진정한 의미가 설교의 주요 주제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부활절 예배

4월 16일에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 3학년 선배님들로 구성된 고막 남친 중창단, 줄여서 '고남중'의 '선한 능력으로' 특송과 2학년 선배님들과 선생님들의 '십자가의 길' 특송으로 하나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며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예배 후 새 생명을 표현하는 의미의 계란과 기독학생회에서 손수 적은 글귀도 받으며 다 같이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긴 시간이 되었다.

| 강은수 기자 |

Remind

봄예술제



2024.4.9

입장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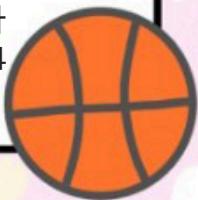
“거고 화이팅 으쌰! 으쌰! 으쌰야!” 김창우 전교 회장의 구호에 전교생이 화답하며 제72회 봄예술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봄예술제의 첫 순서는 자기 반의 개성을 마음껏 보여주는 입장식이었다. 2, 3학년들은 그간의 경험을 살려 능숙하게 자기 반의 끼를 선보였고, 1학년들은 첫 입장식임에도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2학년 담임선생님들께서 모두 입장식에 참여하시는 등 이번 입장식은 선생님들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점이 인상 깊다.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함께 즐기는 대동의 정신이 잘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2024.4.9

풋살

사라진 여자 농구를 대신하여 이번 봄예술제에 여자 풋살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같은 자매반으로 구성된 6명의 여자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뛰는 여자 풋살은 리그전으로 진행되었다. 여학생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축구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경기 결과, 3-1 자매반이 전승으로 1위를 기록하고 3-3, 3-2, 3-4 자매반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2024.4.11

농구

뛰어난 실력으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준 농구의 경우, 각 팀의 마지막 경기가 전영창 체육관에서 열렸다. 경기는 리그전으로 진행되지만, 3-2 자매반과 3-4 자매반이 앞선 두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두 자매반 간의 경기가 사실상 결승전이었다. 또한 이 경기는 3-2 자매반의 3학년 김창우 학생과 3-4 자매반의 1학년 김건우 학생의 맞대결로 형제 대결이라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가져 많은 관심을 모았다. 경기 초반, 김창우 학생과 김건우 학생이 서로 주고받듯이 번갈아 가며 3점 슛을 성공시키면서 경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전반에는 양 팀이 치열한 가운데 3-4가 다소 우세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3-2 자매반의 기세가 강해졌다. 결국 경기의 승자와 더불어 농구 종목 우승의 주인공은 3-2 자매반이 되었다.





2024.4.10

여자배구

남자 배구처럼 여자 배구도 4강전에 1학년이 두 반이나 진출하였다. 4강전은 1-2와 3-4 그리고 1-1과 3-3이 경기하였다. 1학년이 3학년을 꺾는 이변을 만들어내며 1-2가 결승에 진출하였고, 1-1을 꺾고 올라온 3-3과 우승을 두고 다투게 되었다. 결승전에서 첫 번째 세트는 3-3이 가져갔다. 두 번째 세트는 슬슬 경기에 적응하기 시작한 1-2가 가져갔지만, 마지막 세트를 3-3에 빼앗기며, 결국 3-3이 여자 배구에서 우승하였다.



2024.4.9

남자배구

봄예술제 인기 종목인 남자 배구 경기가 자매반의 열띤 응원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치열한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 이번 봄예술제는 4강전에 1학년 두 반이 진출할 정도로 1학년이 크게 선전하였다. 4강전에서 1-1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극적으로 승리한 1-3과 노련한 3-2를 이긴 2-3이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다. 거창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결승전은 강력한 서브와 부드러운 연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2-3이 세트 스코어 2:0으로 1-3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끝났다.



2024.4.9

축구

봄예술제 운동 종목 중 둘째가라면 서러운 축구는 여전히 많은 이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그 인기를 보여주었다. 4강전은 2-2와 3-3 그리고 2-3과 3-1이 경기했다. 2-2와 3-3의 경기에선 3-3이 계속해서 2-2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수비에 집중하던 2-2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1골을 넣으면서 최종 스코어 1:0으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두 반, 2-3과 3-1의 4강 경기에서는 2-3이 3-1을 상대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2:0으로 승리해 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례적으로 3학년이 모두 떨어지고 2학년 두 팀이 진출한 결승전에서는 2-3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전반에만 3점을 득점해 일찍이 승기를 잡았으며 2-2가 만회 골을 넣으며 추격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2-3이 프리킥으로 1점을 더 가져가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렇게 최종 스코어 4:1로 축구 우승은 2-3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2024.4.11

마라톤

이번 마라톤은 작년 마라톤보다 코스 길이가 늘었다. 남자 코스는 5km에서 6km로, 여자 코스는 3km에서 4.4km로 모두 거리가 늘었다. 늘어난 거리에도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뛰었고, 코스 중간중간에 선생님들께서 응원으로 힘을 북돋아 주셨다. 경기 결과, 2학년 신은혁 학생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남자 마라톤에서 우승하였고, 여자 마라톤은 1학년 금하온 학생이 우승하였다.

| 조하성 기자 |



수필 우수작

2232 최치원

집 앞 야트막한 산 위에 뜬 태양이 남향 창을 비추면, 이마와 눈꺼풀 위에 내린 잠이 물러간다. 때 수건과 칫솔만이 든 목욕 가방을 손에 쥐고 목에서 배꼽까지 보일 듯이 늘어난 티셔츠와 발목을 감추지 못하는 안갯 빛바랜 츄리닝을 입고서 차에 오른다.

달리는 차에서 차창을 쳐다보면 만연한 꽃들과 갓 돋은 춘초들, 경운된 논들이 태양이 선사하는 금가루를 덮어쓴다.
파란 대낮에 세상이 노란 빛을 띤다.

뻐근한 어깨가 기지개를 신호할 즈음 목욕탕에 도착한다. 탕에 들어가기 전 눈 앞을 사로잡은 체중기에 몸을 올린다. 입고리가 요동친다. 넘실대는 더운 물은 내 발가락부터 땅을 향해 뻗은 두 다리와 뱃가죽을 얼싸안으며 거친 살갗을 적신다. 피로한 육신은 그처럼 반가운 탄성, ‘아이고 아이고’를 내뱉으며 풀어진다.

덜컥이는 슬리퍼를 끌고 바깥에 나온다. 그늘 없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놓인 차 지붕에 아지랑이 오른다. 문을 열고 조심스레 시트에 손 갖다대면, 어우 약간 놀라. 팔자 좋은 동생 어르신 기차처럼 쿠궁쿠궁 코 골며 뒷자석에서 주무시고, 그거 웃기다고 녹화하는 유치한 짓한다.

축축한 목욕 가방 차에 싣고 노곤한 눈 게슴츠레 차창을 향한다. 참으로 뭐 없는 하루이다.

문예 우수작

첫 마디 나눌 수 있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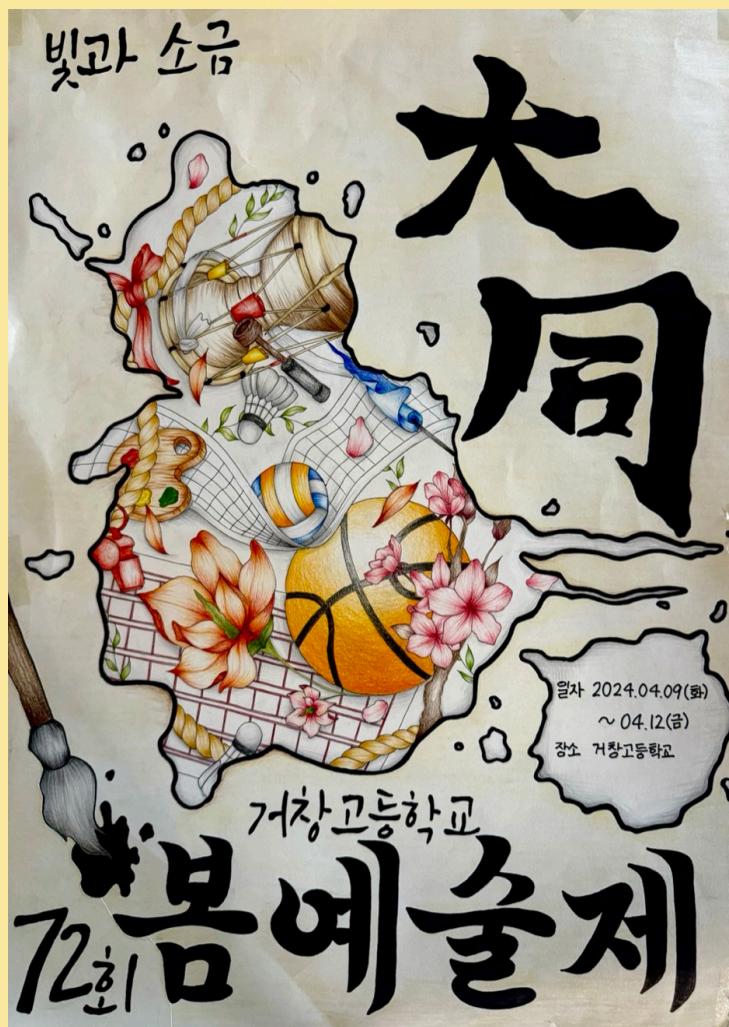
만 남의 우연이

남 기는 여운

삼행시 : 2-3 광진현

포스터

2-3 신지후



일러스트

3-4 원재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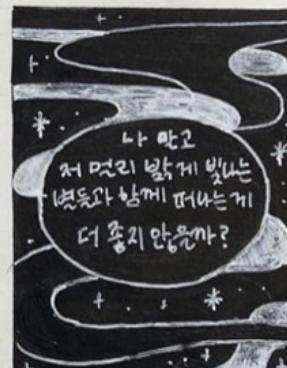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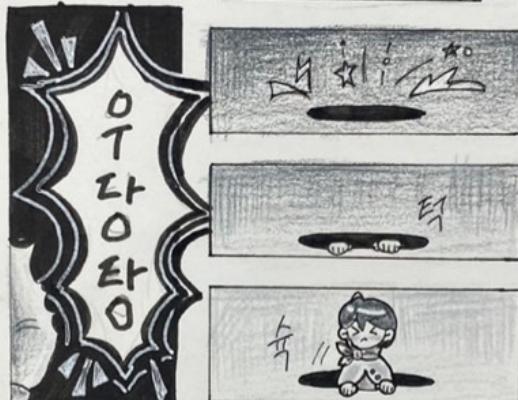
만화 우수작

이윤서 작품

유성우

자기 유성과 만날 때 많은 유성이 나타남
돌아가는 유성.

이를 발견하는 이는 별에게 소원을 빌기도 한다.



봄예술제 결과

남자 배구 우승	2학년 3반
여자 배구 우승	3학년 3반
축구 우승	2학년 3반
피구 우승	3학년 1반
계주 우승	3학년 2반
남자 육상 우승	1학년 4반
여자 육상 우승	1학년 2반
남자 배드민턴 우승	3학년 1반
여자 배드민턴 우승	3학년 3반
탁구 우승	3학년 4반
줄다리기 우승	31 자매반
풋살 우승	31 자매반
농구 우승	32 자매반
남자 마라톤 1등	21 신은혁
여자 마라톤 1등	12 금하온

신앙집회 : 우리 인생의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우리 학교의 이념에 따라 매년 열리는 신앙집회는 기독학교인 거고에서 가장 큰 기독 행사라 할 수 있다. 이번 신앙집회는 <우리 인생의 노래>라는 전체 주제로 손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다.

1일차 첫번째 예배 항해하는 인간

6월 10일 야자 1교시에 신앙집회 1일 차 예배가 진행되었다. 예배의 시작은 73기 기독학생회가 열심히 준비한 신나는 찬양이었다. 모두가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1일 차 첫 번째 예배의 주제는 <항해하는 인간>이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7:10-15, 20-26 이었다. 우리는 모두 항해하는 인간이다.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시련이 찾아온다. 시련을 겪으며 각자의 배는 부서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항해는 계속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해하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첫 번째 신앙집회 예배는 김지혜 선생님과 아스트라의 특송으로 마무리되었다.

2일차 두번째 예배 사랑하는 인간

6월 11일 신앙집회 두 번째 예배가 오전 3, 4교시에 진행되었다. 2일 차 두 번째 예배의 주제는 <사랑하는 인간>이고 성경 구절은 아가 8:5-6/요한복음 15:7-14였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이 사랑은 마치 삼단 분수처럼 흐르기에 나에게 사랑이 흘러와야 나 또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 우리들이 조건 없이 받은 '내리사랑'을 '서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고인들이 되길 바란다. 두 번째 신앙집회 예배는 72기 기독학생회의 특송으로 마무리 되었다.

2일차 세번째 예배 분노하는 인간

6월 11일 신앙집회 세 번째 예배는 야자 1교시에 진행되었다. 예배 전에는 윤슬 중창단의 특송이 있었다. 2일 차 세 번째 예배의 주제는 <분노하는 인간>이고 성경 구절은 시편 139:1-4, 17-24이었다. 시편 139편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구절이 나오다가 19절에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앞뒤 문맥과도 맞지 않은 이 구절에서 섬뜩한 분노가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시편 139편에는 '안다'라는 말이 7번 나온다. 즉,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신다. 다가오는 시험으로 지치고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내길 바란다. 세 번째 신앙집회 예배는 2학년 중창단의 특송으로 마무리되었다.

3일차 네번째 예배 노래하는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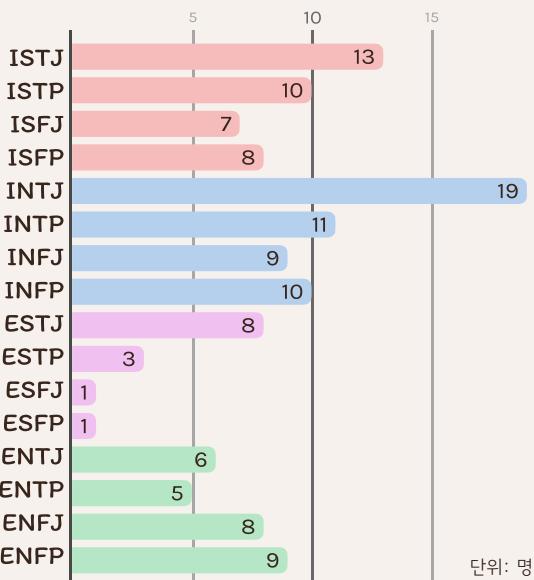
6월 12일 신앙집회 네 번째 예배는 오전 3, 4교시에 진행되었다. 3일 차 네 번째 예배의 주제는 <노래하는 인간>이고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1-11이었다. 해당 구절은 '그리스도 찬가'라고도 불린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기 위해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다. 이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고인들이 되길 바란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노래가 되는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 예배 끝에는 작년 가을 예술제 합창 최우수상을 받은 72기 2학년 3반의 특송으로 마무리되었다.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다가오는 2차 정기고사로 우리는 마음이 분주하고 힘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이번 신앙집회는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었다. 지친 일상에서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고인들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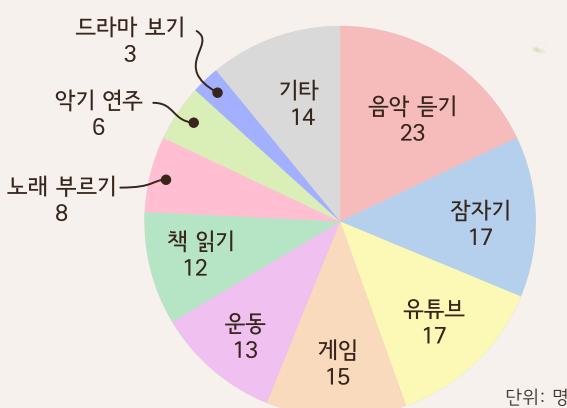
양케이트

거고의 특별한 문화 중 하나인 ‘산책’! 산책 돌 때 대화가 순조롭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하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학기 초에 산책을 돌 때 후배에게 어떤 질문을 해서 대화를 이어 나가야 할지 고민하며, 서로 질문 리스트를 짜주는 선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산책을 돌 때 하기 좋은 질문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Q2. 취미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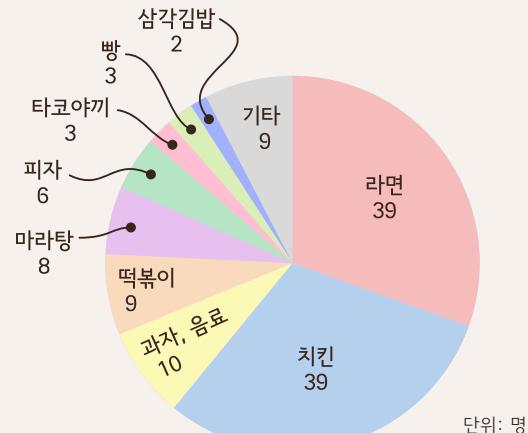
주말에 우리 거고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죠? 특히 우리 학교는 자율 동아리가 잘 개설되어 있어서 같은 취미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이기가 매우 쉬워요. 자율 동아리로 개설된 취미들 외에도 각자마다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서 조사해봤습니다! 거고인들의 취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거고인들의 특이한 취미로는 코딩하기, 낭만을 마시며 푸른 하늘을 향해 사랑을 노래하기 등이 있습니다.

Q1. MBTI가 뭐야?

MBTI가 빠른 아이스브레이킹의 최고죠. 상대와 첫 산책 돌 때 늘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 같은데요. 자신의 성격을 빠르고 간편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성격을 쉽게 알아차리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어요. 거고인들은 어떨까요? 제 경험 상, 우리 거고인들은 정말 끼가 많아서 MBTI를 물어보면 E가 많을 줄 알았는데, ‘낄끼빠빠 잘하는 I’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자신과 같은 MBTI를 공유하고 있는 거고인은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Q3. 가장 좋아하는 야식 메뉴가 뭐야?

산책을 돌 때 동급생이나 선배, 정말 가끔은 후배가 사준 간식을 야식으로 먹기도 하고, 배달로 시켜 먹는 야식은 기숙사생들의 삶에서 빼려야 빼 수 없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야식을 친구들과 함께 앉아 먹기도 하고, 다른 주변 친구들이 올 때는 끝내 못 이기는 척 간식 몇 개를 투척하기도 하죠. 이러한 면에서 기숙사에서 먹는 야식은 하나의 추억 생성기이기도 합니다. (주말의 야식이란... 일과시간을 살아갈 동력이랄까나? 흐) 거고인들이 즐겨 먹는 야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통학생이라 야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거고인도, 순대국밥이 최애 야식 메뉴라고 답한 거고인도 있었습니다!



시사인 거고

“옛날 마블 영화가 그립다.” 최근 개봉한 마블 영화에는 이런 관람평이 부쩍 늘었다. 그리고 마블 영화의 평점은 이러한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다. 2020년 이전 개봉한 「아이언맨」(2008)과 「어벤져스 : 엔드게임」(2019) 등은 IMDb 평점 7.9와 8.4와 같은 7~8점대의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2020년 이후 개봉한 「이터널스」(2021)와 「닥터 스트레인지 : 대혼돈의 멀티버스」(2022) 등은 6.3과 6.9와 같이 전에 비해 저조한 평점을 받고 있다.

이는 마블뿐 아니라 마블의 모기업인 디즈니의 영화 역시 겪고 있는 현상이다. 디즈니와 마블의 연이은 실패 요인이 콘텐츠 과다 공급, 스토리의 질적 저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목되고 있는 와중에 영화계뿐 아니라 정치와 시사 방면에서도 자주 논쟁거리가 되는 정치적 올바름, 혹은 PC주의(Political Correctness)라고 불리는 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PC주의는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나 차별이 섞인 언어나 정책을 지양하는 신념, 혹은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적 운동을 뜻한다. 이는 언어와 행동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발생한 신념으로,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추구한다. PC주의가 대두되며 개인이 표현을 삼가던 예의의 범주를 넘어 표현에 주의하는 것이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문화 콘텐츠에서도 건전한 메시지를 전달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부적절한 단어를 순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 일례이다. 이렇듯 긍정적인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PC주의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PC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이에 반대하는 사람 또한 많아 반PC주의가 생겨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마블과 디즈니의 영화 평점에서도 PC주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PC주의에 대한 논쟁은 어쩌다 시작되었으며 왜 끝나지 않는 것일까?

PC주의의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PC주의는 20세기 초 러시아에서 기원한다. 1917년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블라디미르 레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사람들에게 정당 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정치적 올바름’이라 칭했다. 당시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전체주의적인 보복이 가해졌으며 서구 문명을 파괴하기 위해 소수자를 피해자 집단으로 규정해 이들이 반서구 혁명의 동력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표현이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 기득권들에 의해 나치즘과 공산주의를 비꼬는 은어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각종 인권 운동이 활발해지며 현대의 PC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전히 비판적이고 극단주의를 비꼬는 단어로 쓰이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의미가 확대되며 오늘날의 의미가 되었다.





과도한 언어 순화에 관한 예시로,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과거 80년대에 ‘장애자’라는 표현을 ‘장애우’라는 표현으로 고쳐 보급했는데, 친근함을 이유로 진행되었지만 이내 장애 인들의 자율성과 의지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장애인’으로 교체되었다. 처음에 소개한 마블 등의 영화를 비롯한 문화콘텐츠에 등장하는 과도한 PC주의도 큰 반발을 겪고 있다. 인어공주 실사 영화가 제작될 때 하얀 피부와 적발로 대표되는 에리얼 배역에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주연으로 캐스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사람들은 PC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이 과연 고전 명작의 가장 기초적인 설정마저 바꿔야 할 이유인지 거세게 반발했으며, 결국 영화 ‘인어공주’는 메타크리틱 유저 평점 2.3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받고야 말았다. 그뿐만 아니라 PC주의를 위해 영화의 작품성마저 저하시키는 영화들이 나오며 이러한 여론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영화 외에도 게임 등의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조는 점차 퍼지고 있는데, 올해 4월 출시된 국산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는 IGN 프랑스에 의해 ‘캐릭터가 여자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만든 성적인 측면만이 부각된 인형 같다.’라는 게임성과 관계없는 외적인 부분으로 혹평을 받은 바 있다. 단지 캐릭터의 디자인만으로 혹평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끝없이 증가하며 PC주의에 대한 대립은 점차 거세지고 있다.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기 위한 신념이,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차별은 차별을 낳고 혐오는 혐오를 낳아, 이러한 악순환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PC주의에 대한 인식 또한 점차 차별과 갈등을 불러오는 사조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PC주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는 PC주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결국 PC주의는 균형 잡힌 접근 속에서 억압과 제한을 지양하며 자리 잡아야 한다. 적절한 PC주의는 항상 환영받아왔다. 과도한 PC주의의 강조로 실패한 영화가 있는 반면 소수자를 소재로 잡았음에도 ‘코코’와 같이 문화적 특색과 배경을 잘 고려하여 명작의 반열에 든 훌륭한 영화 또한 존재하며,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에 나온 마카오와 조마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PC주의를 녹여낸 캐릭터들 또한 여럿 존재한다. PC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배격하는 것은 PC주의 자체가 아니다. 다만 과도한 PC주의 강요와 강제성을 필연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하며 발생하는 격한 갈등이 그들이 반발하는 것들이며 결국 PC주의의 본질의 가장 큰 적이 이것들이기도 하다.

차별과 갈등을 없애기 위한 사상이 도리어 갈등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PC주의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고 PC주의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동되거나 휩쓸리지 않는 것이다. PC주의가 특정 집단의 이기적인 도구가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PC주의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며 우리는 더욱 갈등과 차별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서예준 기자 |



시사인

작년 10월, 의료계의 거센 반발 속에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꾸준히 제기된 지방 의료 인력 부족과 특정 진료과 병원 부족 등의 의료진 분포 문제가 코로나 시기 의료진 부족 문제가 대두되며 이와 함께 주목받게 됨에 따라 정부가 다양한 의료 정책의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정책의 논의는 이전 정부에서도 활발히 논의된 바 있지만, 당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잠정 중단되었다. 이번 역시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거셌지만,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장을 밀어붙이며 정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의료계는 현장 이탈, 사직, 계약 포기, 휴학, 소송, 집회 등을 통해 정부의 정책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의사에게 치명적인 '면허 정지'라는 카드를 꺼내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미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찬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찬성: 정부, 간호사 협회 등

첫째,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외상, 중증 감염, 소아질환, 출산 등은 조속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열악한 균로환경과 적은 의사 수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의사 대부분이 성형외과 등의 미용 의료에 몰리며 생기는 현상이다. 2023년 상반기 진료과목별 전공의 총원율을 살펴보면, 성형외과는 161%, 피부과는 158%, 안과는 175%로 정원 초과지만, 소아청소년과는 16.3%, 흉부외과는 51.4%, 산부인과는 71.9%로 정원이 미달하였다. 따라서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부족한 분야의 의료 질이 향상될 것이다. 둘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 의료 인력까지 수도권이 흡수하게 되며 지방 의료진 부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낸 '전국 시도별 의료 공백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10만 명당 50.6명으로 가장 높고, 경남과 전라도가 그 뒤를 이으며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밀돈다. 즉, 지방일수록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 기반 시설 부족 탓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속 지역인재특별전형을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과밀화로 인해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 의료 인력까지 수도권이 흡수하게 되며 지방 의료진 부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낸 '전국 시도별 의료 공백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이 10만 명당 50.6명으로 가장 높고, 경남과 전라도가 그 뒤를 이으며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해당 지역들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 또한 전국 평균을 크게 밀돈다. 즉, 지방일수록 치료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 기반 시설 부족 탓에 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속 지역인재특별전형을 이용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OECD가 공개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의사 1인당 진료 건수는 6,113명으로 OECD 32개국 중 가장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7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쳤다. 이와 같이 의사 수가 부족하니 1인당 진료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위중한 환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의 신영선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에 의하면, 의사 정원을 늘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경우 2025년엔 의사 수가 약 5,000명 부족해질 것이며, 이후로도 점점 증가해 2035년에는 약 27,200명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의사 수를 충원함으로써 의료진 부족을 막아야 한다.

반대: 대한의사협회

첫째, 의사를 늘려도 필수 의료 분야 기피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학생들이 특정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그 분야의 의료시설이나 환경 등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 등의 진료과는 의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여 배상 책임이나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기에 의사 개인에게 큰 부담을 준다. 또한 의료학술 포털 키메디가 2022년 의사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필수의료 확충 대책에 대한 요구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이유 중 '노력 대비 적은 대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의대 증원이 아닌 합리적인 대가와 근무 환경 개선, 필수 의료 분야 전공의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다.

거고

둘째, 인구 감소로 의사의 수요 역시 감소할 것이다. 국가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 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할 때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면, 20년 후에는 의사인구가 수요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고령화가 진행중인 다른 국가에서는, 우리와 반대로 의대 정원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명 늘어나면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약 22% 증가하고, 또한 전문의 1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 걸리고, 약 10억 원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각자의 주장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렸으나 의정 갈등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에 더불어 사법부가 이러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결국 올해 5월 24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1,50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만장 일치되었다. 이에 20년간 변동이 없었던 의대 정원이 약 50%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여전히 깊은 갈등 속에서 결정된 의대 정원 확대의 여파와 전망은 어떨까?

가장 먼저 교육계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의대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계 입학의 허들이 낮아져, 기존에 의대 지원이 어려웠던 학생들도 진학할 수 있게 되면, 의대 진학에 대한 통념이 흔들릴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교육의 과열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기존에 공학 계열을 진학하여 앞으로 나라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될 인재들 또한 의대 진학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공학 계열의 인재 유출 또한 예상된다.

또한, 지역인재전형이 개편되며, ‘지방 유학’이 학부모들의 입방아에 올라와 있다.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자,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이 자신들이 위치한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하여 뽑는 전형이다.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에 의대 정원의 1,900명가량을 배분하여, 의대진학의 문턱을 더욱 낮추었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학생들도 지방의대를 가기 위해 일부러 지방까지 일정 ‘유학’을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지역인재전형은 고등학교를 3년만 다니면 조건을 만족하지만, 2028년부터는 지방에서 중학교까지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어 현재 초등생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파업한 의료진의 복귀와 의료 시스템의 마비에 관해서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전공의의 파업이 석 달이 넘어갔다. 아직도 정부는 현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고, 전공의들은 이에 맞서 계속해서 파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 때문에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의료 공백이 매우 커졌고, 이에 따라 의료 시스템은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다. 이러한 갈등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과 국민이 떠안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의료계,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의료계를 대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 강은수 기자 |



학교 논쟁

사회자

지금부터 '수행평가나 심화 탐구 과정에서 AI 사용은 바람직한가?'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 입론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심문을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1

저희는 수행평가나 심화 탐구 과정에서 AI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습 효과와 창의성을 저해시킬 수 있습니다. AI에 의존하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은 직접적인 경험과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 AI를 사용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확성 문제가 있습니다. AI는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존성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AI에 의존하게 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정보를 찾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행평가나 심화 탐구 과정에서 AI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1

AI 사용으로 학습 효과와 창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습 효과와 창의성은 AI 사용이 아닌 사실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1

일단 연구에 따르면 AI는 아이디어 생성과 문제 해결에 유용할 수가 있지만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예가 학생들이 AI를 활용한 브레인스토밍에서 쉽게 해결한다 하는 느낌을 받았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지 못한다고 느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2

그리고 저는 인터넷 사용과 AI 사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는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도출해 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사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색하고 수많은 인터넷 자료 속에서 저희의 답안을 저희가 직접 찾아내기 때문에 두 과정 사이에 학습 효과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심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1

저희는 수행평가나 심화 탐구 과정에서 AI 사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한테 항상 부족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AI를 사용하게 되면 자료 조사나 수행평가에 AI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드는 시

간보다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것만큼 메리트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심화 탐구 주제 추천 AI를 사용하게 되면 AI는 인터넷에서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긁어오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는 보장한다고 생각합니다.셋째, 수행평가에서 잘 모르거나 막힌 부분을 시간이랑 돈을 아껴가면서 가장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수행평가나 심화 탐구를 할 때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생길 때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보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시간과 돈을 아껴가면서 해결 가능한 것은 AI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수행 평가나 심화 탐구 과정에서 AI 사용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2

AI가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확성 문제로 인하여 AI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을 경우 퀄리티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찬성2

AI가 잘못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AI가 내놓은 답변을 저희가 그대로 쓰지 않고 다시 한번 정확성을 확인한다면 퀄리티도 보장할 수 있고,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1

두 번째 질문입니다. AI를 사용해서 자료를 가져오게 된다면, 콘텐츠 소유권 침해 문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표절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AI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찬성2

인터넷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그건 사용자의 윤리의식이 문제이지, AI 사용 자체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2

하지만 윤리 의식을 가지고 AI를 사용한다고 해도, 챗GPT처럼 AI가 정보를 제공할 때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료의 출처를 찾을 수 없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콘텐츠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찬성1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현재 답변 구성을 할 때 참고한 자료의 출처 링크를 제시하는 AI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윤리의식이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현재 AI는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성 문제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어 마음 편히 활용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져다주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죠. 따라서 AI를 활용할 때 윤리 의식을 가지고, 주체적이고, 영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하성 기자 |



까치문구 인터뷰

Q1. 언제부터 거창고등학교 앞에서 영업을 시작하셨나요?

사장님: 지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Q2.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창고등학교와 샛별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사장님: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예전에는 다 현금으로 계산하던 추세였고 종이에 많이 썼던 만큼 노트도 많이 팔고 볼펜도 많이 팔고 지우개, 샤프, 샤프심, 이런 것들도 양수로 많이 팔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 개씩 시켜도 택배로 오니까 점점 인터넷으로 오니까 이제는 문구점이 조금 많이 힘들어졌죠. 요즘에는 많이 힘들어요. 요즘에는 와플밖에 안 팔고 있죠. 문구점 사장님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Q3. 말씀을 들으니 와플이 인기 상품인 것이 느껴지네요. 그런 와플은 언제부터, 어쩌다 팔기 시작하셨나요?

사장님: 옛날부터 요 주위에 먹거리가 없으니까 전 주인이 장사 수완이 좋아서 와플을 팔기 시작한 걸 내가 이어하는 거예요. 싸고 맛있으니 와플이 제일 인기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학생들이 좀 먹거리가 시원찮잖아요. 그래 가지고 솔직히 돈은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거는 감안해서 이제 좀 줄여서 팔고 있죠.

Q4. 마지막으로 거고의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지금도 여전히 착실하고, 인사성 좋고, 선후배 간의 사이도 참 좋고. 그걸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어. 서로 추억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어. 어차피 너희들은 중학교에서 다 상위 1%로 자란 애들이고 인성도 좋고 하니까,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학교 들어와서 3년 동안 무탈하고 졸업도 다 잘 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지.

| 이지훈 기자 |



Q1. 언제부터 거창고등학교 옆에서 영업을 시작하셨나요?

사장님: 22년도 11월에 시작했지.

Q2. 거고 옆에서 영업을 하기로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장님: 내가 이 동네에 살기 때문에 여기서 개업하면 좀 재밌고 편할 것 같았어. 그래서 재밌고 편해.

기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할인도 해주시는 건가요?

사장님: 내가 가만히 눈치를 보거나 그러면 뭔가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 학생들이 있어. '내가 보고 있어서 너 못 사 먹니?' 하고 내가 물어보면 줄 수는 없잖니? 그래서 눈치껏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거 4천 원 있어도 못 사 먹는데 내가 원 플러스 원을 주면은 그래도 2개에 4천 원이면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도 해봤어. 손해는 점주가 보시는 거지 회사가 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 같아. 가끔 보인다. 튕김 한번 쳐다보고 그냥 라면 하나 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오면 이제 하나 주게 돼. 여기서는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다~.

Q3. 거고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사장님: 나도 이제 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다녀봤는데 그 지역에 가서 생활하는 게 참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의 어떤 부분에 뭐라 그래야 하나 행사라고 그래도 지금 5월에도 산양삼 축제를 하고 있거든. 창포원에서 그런 부분도 거창국제연극제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의 어떤 부분들을 3년 동안 있으면서 조금 다음에 또 네가 졸업하고 다시 오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어떤 체험 거리 같은 걸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공부만 하지 말고. 항상 남는 거는 항상 공부가 아니다. 지나고 나면 어떤 추억이지. 다른 거 없고 여기 와서 이삼십 분 떠들다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 서예준 기자 |



샛별매점 인터뷰



Q1. 언제부터 거고 옆에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하셨나요?

사장님: 내가 학교 옆에서 장사하는 거는 94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거는 아마 한 16년 정도 됐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장사를 했지.

Q2. 거고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너희 졸업생 중에 쌍둥이가 있었거든. 개네가 물탱크에 들어가서 수영해 가지고 너희들이 샤워도 못하고 하루 종일 물도 못 썼던 게 기억이 나. 여름에 더우니까 옥상 물탱크에 들어가서 수영하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알아 가지고, 결국 둘은 기숙사에서 쫓겨났지.

Q3. 이건 주변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질문인데, 샛별 매점이랑 샛별 재단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사장님: 없어. 우리 딸내미가 샛별초, 샛별중학교를 나왔는데, 그거 말고는 매점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름이 샛별 매점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에 속한 매점인 줄 알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함부로 와서 물건 막 가져가. 나중에 뭐 학교로 결제할 게 그러면 우리는 기가 막히지. 물건값 받으려 쫓아댕겨야 돼. 이렇게 학교 안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난 단독, 유아독존인 거지.

Q4. 거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샛별 매점이 아줌마집으로 통하잖아요. 아줌마집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장님: 난 좋아. 내가 아줌마잖아~ 선생님들이 나한테 쿠폰을 발행해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샛별 매점이라 안 하고 나도 아줌마집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집이 오히려 샛별 매점보다도 나한테 친근해.

젊은 사장님: 그런데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 다 다른 거 아세요? 여고 친구들은 샛매라 그리고, 샛중 친구들은 거고 매점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응 그래. 이름이 많아. 그러니까 장사하시던 분들은 옛날에 궁전 아파트 쪽에 있어서 궁전 슈퍼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고 후문이라 그러기도 하지.

Q5. 마지막으로 거고의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사장님: 오랜 시간 장사하면서 보니까 애들이 이제 개인주의로 바뀌는 게 눈에 보여.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을 하나 친구에게 사주잖아. 내가 사주면 내가 원하는 걸 개가 먹어야 해. 그러니까 친구가 원하는 걸 사주는 게 아니야. 뭐 100원짜리 사줘도 ‘나 이거 먹을래’ 그러면, ‘안 돼, 내가 돈 내잖아’ 아래. 지금도 이게 이해가 안 가. 또 사실, 여기서 장사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아줌마 계산해 주세요’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애들이 있어. 그럼 정색하고 쳐다봐. 계산 안 해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놔봐’ 그러거든. 그건 기본 예의잖아. 그러면 개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데 나도 사실 기분 나쁘거든. 그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면 다 풀리지 않겠지만 기분이 어느 정도는 풀려. 그래서 개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약간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감정이 수그러들어. 이처럼 나를 먼저 아껴야 하는 건 맞는데, 학생들이 그냥 나만 아끼지 말고 학생들이 옆에 애들도 좀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수학교생T 인터뷰

Q1. 교생선생님으로서 봄예를 지켜보니 어떠셨나요?

해창T: 제가 이번 봄예 때 연노란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 1학년일 때도 저희 반 반티가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1학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학생들의 활발한 모습들을 보고 기운을 많이 받아 가는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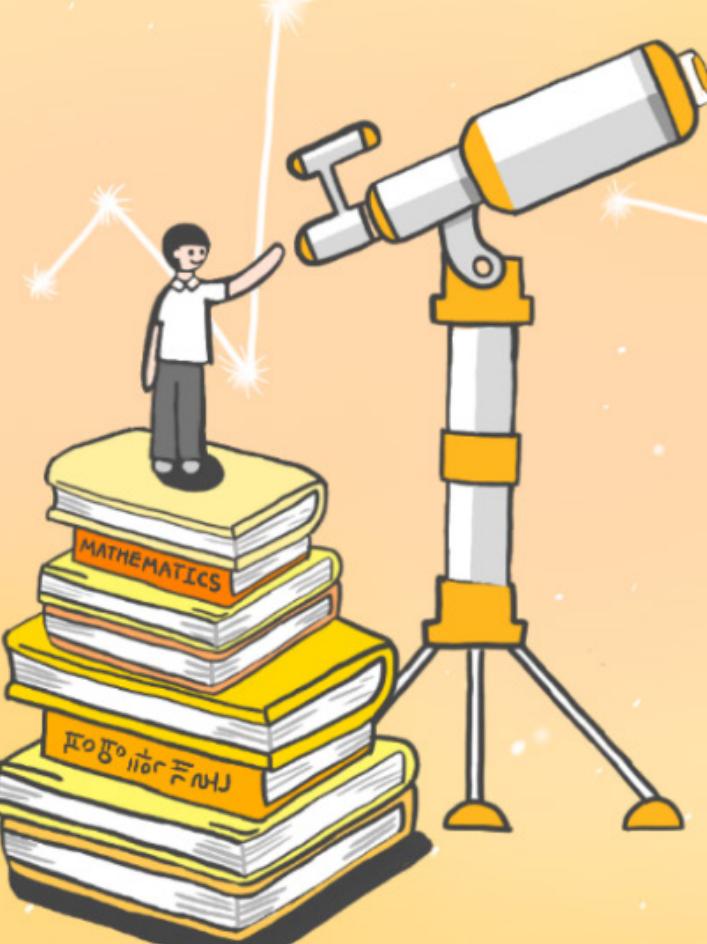
Q2. 현재 수학과 교생선생님으로 와 계시는데, 왜 수학 교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해창T: 저는 되게 늦게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는 시점에 수학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맞는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나 찾다 보니 아이들도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사라는 직업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교사가 되기로 정했습니다. 과목은 제가 제일 좋아했고, 남을 가르칠 만한 수학을 가르쳐보자 결심을 해서 수학교육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3. 학창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해창T: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 수능 날 있었던 일입니다. 수능 날 오전에 국어를 치기 전에 국어 선생님이 고전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보다가 어떤 시 하나가 꽂혀서 쭉 읽어봤어요. 묘비명이라는 시였거든요. 그렇게 쭉 읽어보고 들어가서 수능 국어를 풀다가 그 시가 나타난 거예요. 덕분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죠. 다음 수학 시간에 제가 21번, 30번 제외하고 다 푼 상태였는데, 무엇을 풀까 고민하다가 21번을 풀었어요. 그리고 30번을 뭐로 찍을지 고민하는데, 수능을 치게 되면 신분 확인을 한다고 민증을 올려놓고 치거든요. 제 발급 날짜가 9월 13일 이여서 그냥 13으로 찍었어요. 그런 후에 21번을 풀었는데 답이 13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이 같지 않을 거니까 30번을 그냥 9로 고쳐서 냈어요. 이유 없이 그냥 9월 13일이라서 9로 고쳐서 냈어요. 그리고 끝난 후에 답안을 확인하는데 21번, 30번을 다 맞춘 그런 일이 젤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4.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해창T: 저는 고등학교 내내 안정적인 직장이 갖고 싶다는 생각에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했는데 3학년에 친 사관학교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수능을 봤고 대학을 가게 됐어요. 경영학과로 갔는데, 군인이란 꿈에 미련을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도전했고 1차를 붙었어요. 2차는 면접이나 수능 성적을 보기 때문에 수능 원서를 써놓고 면접을 보러 사관학교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군인은 나한테 안 맞다 싶어 면접을 포기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 원서를 썼으니 한 번 더 치게 됐고 대학을 옮겨 경영학과로 갔어요. 근데 또 지내다 보니 저랑 맞는지 고민이 되었고, 고민 끝에 수학 교사가 하고 싶다는 결론이 나와서 수학교육과로 전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진로도 없이 살아왔지만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진로가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성적 때문에 못 하면 아쉬우니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일부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네요.

물리교생T 인터뷰

Q1. 교생 선생님으로 봄소풍을 맞이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황성웅T: 봄소풍에 가면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고 사진도 찍고 다양한 추억을 쌓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봄예술제가 더 보고 싶긴 했는데 사정상 못 보게 된 게 조금 아쉽고, 이제 저는 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봄소풍 가서도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맡아서 해야 할 생각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Q2. 교생선생님으로 오랜만에 거창고에 오게 되었는데 거창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황성웅T: 보통 교생 실습을 대학교에서는 뺑뺑이를 돌려서 학교를 배정해 주는데 대부분 차를 타고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로 배정을 해줘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멀리 가고 싶지는 않아서 거창고를 선택했어요. 또 저의 본가가 거창인데 본가에 잘 안 내려오기도 했고 거창고에서 정말 재미있던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기도 했고 오면 아직 아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겸사겸사해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Q3. 물리 교생 선생님으로 거창고에 돌아오셨는데,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던 이유와 물리라는 과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황성웅T: 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매해가 지나면서 나이가 들지만 새로 오는 학생들 그 젊은 세대들과 계속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 방학도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외우는 걸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국어, 사회 같은 문과 과목은 제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이과 과목인 수학이나 과학 쪽으로 갔어야 했어요. 근데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좋아하는데 수학을 못 하고 외우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결국 남은 건 물리밖에 없는 거죠. 생명과학, 지구과학 같은 다른 과학 과목들도 결국 암기해야 했으니까요.

Q4. 교생 실습을 마치고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으신가요?

황성웅T: 저는 학생들과 많이 소통하고 제가 가진 지식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리 자체가 쉬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저는 물리를 되게 즐겁게 했으니까, 물리의 즐거움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걸 최대한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습 왔을 때도 공부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수업을 많이 못 하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만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교수님이나 동기나 선배들한테 자문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 최대한 맞춰서 하려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Q5. 학창 시절에 남는 일화가 있으신가요?

황성웅T: 기억에 남는 사건을 딱 하나 정하긴 힘든데 되게 그냥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용한 학생이긴 했으나 조용조용한 문제아였죠. 박이삭 선생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맨날 학교 늦게 나오고 야자 째고 저는 기숙사에 숨어 있었거든요. 아니면 방에 불 꺼놓고 야식시켜 먹고 그랬어요. 창문 열면 CCTV 보이니까. 그런 거 조마조마하면서 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방학에 보충수업이 있었는데 그때가 오전인가 오후까지만 보충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야자 시간까지 시간이 남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일찍 끝났을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대구 가서 밥 한 끼 딱 때리고 그대로 내려와서 야자 시간 안 늦게 와서 하고. 그때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Q6. 마지막으로 거고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황성웅T: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다들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느낀 게 물론 어른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뭐든지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냥 자기가 노력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는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1학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성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맨날 놀았어요. 그냥 옛날부터 머리가 좋았다. 그런 게 있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저보다 밑에 있었는데 열심히 한 애들한테 따라잡하고 저는 계속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는 끈기와 노력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희정T 인터뷰



Q1. 어쩌다 수많은 학교 중에서 거창고를 선택해 부임해 오셨나요?

거창고는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좀 독특한 문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들었던 문화들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보통 선생님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은 행사에 참여만 하는 다른 학교와 달리 행사 준비도 아이들이 하는 거였어요. 뭘 하든지 간에 자율성이 보장되고 아이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 봤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10시만 되면 아이들이 쌍쌍이 산책을 돌아요. 그 모습이 되게 자유로워 보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거창고는 조금 다른 곳이구나. 여기에 가면 그래도 아이들하고 재밌게 보낼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Q2. 거창고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나요?

저는 3학년에 송수민 학생, 암다시피 되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걸 넘어서 항상 보면 밝아요. 그 친구를 볼 때면 열심히 해서 너무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알게 모르게 다 챙겨요. 사실 그런 모습은 이제 학생들한테 쉽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학생끼리 챙기면 또 모르겠는데 그 친구는 선생님들도 챙길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진짜 어디 가서든 잘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좀 솔직히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하는 가장 최고의 칭찬은 아들 삼고 싶다 딸 삼고 싶다거든요. 그 친구는 딸 삼고 싶은 친구야.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이유는 너무 밝은데 그 너무 밝은 모습이 사실은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한 모습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근데 그럼에도 열심히 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됐으면 좋겠는 친구.

Q3. 선생님이 되신다면 다른 과목도 많았을 텐데 어쩌다 국어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셨나요?

저는 수시 납치를 당했어요. 사실은 원서를 전부 다 사회과에 넣었어요. 원래는 정치와 법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때 선생님한테 너무 매력을 많이 느껴가지고 정치와 법을 가르치면서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사회과에 넣었는데, 유일하게 한 과만 은사님이 넣은 학교를 넣었어요. 그런데 국어과로 납치를 당했죠. 그래서 만약에 됐었다면 아마 정치와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지 않았을까.

Q4. 과거의 재학생 혹은 졸업생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나요?

희정T: 당연히 있죠, 처음에 우리 애들이 거창고에 왔을 때 다들 똑같이 그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왔다 ‘나는 모범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처음 시험을 딱 치고 나면은 약간 좌절 비슷한 걸 하더라고. 그걸 보고 있으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내가 SKY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돼 있는 아이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3년을 보내는 거는 나는 조금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애들이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그게 이 애들한테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것인가 단순히 그 대학교가 이름이 있는 대학교여서 가는 거라면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진짜로 찾아야 하는 건...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덕목이 뭐야, 어떤 인재가 되라고 그러지?

기자부원: 빛과 소금이죠

희정T: 빛과 소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자부원: 필요해져야 하죠.

희정T: 필요해져야 되지 그지? 그러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긴 해. 근데 애들이 정작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은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애들이 조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 사는 것의 필요 조건은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는 거.

Q5. 어쩌다가 반려묘 까묘를 만나게 되셨나요?

희정T: 아니 이름도 잘 모르면서 까묘가 아니라 까뮤라니까

기자부원: 상당히 이국적이네요.

희정T: 까메유예요. 까메유, 까메유가 까뮤가 됐어요.

기자부원: 상당히 토속적이네요.

희정T: 까뮤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때 만났어요. 기숙학교였는데 웬 고양이가, 피부병이 생겨 가지고 털이 다 빠진 새끼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 나를 딱 보더니 그 순간 바로 달려오더라고. 냥줍을 당했죠. 처음에는 책임감이 나한테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자신이 없었어. 혼자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안 키우려고 했었는데, 그때 교무실이 2층이었는데 그 조그만 다리로 작은 그 애가 계단을 막 올라오는 거야. 나 따라서 올라오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굴러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울지도 않아. 그러고는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얘는 내가 키워야겠다 싶어 가지고 키우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되게 착한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

재익T 인터뷰

<급훈>
공부는 재익쌤처럼
인생은 영희쌤처럼



Q1. 왜 수많은 학교 중에서 거창고를 선택해 부임해 오셨나요?

재익T: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는 내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 수업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는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수학 수업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그런 수업을 하면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거창고등학교라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는 있어도 수학을 아예 놔버리고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은 잘 없으니까 '이곳에서 수학 수업을 하면 훨씬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거창고를 선택했어.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뭐냐면, 내가 거창고등학교를 나온 게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단 말이지. 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이었고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어서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 그래서 내가 후배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거창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어.

Q2. 선생님이 부임하고 나서 첫 수업이 기억나시나요? 첫 수업의 분위기나 감상 등을 알려주세요.

재익T: 첫 수업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 그때는 이렇게 학생들을 스물 몇 명을 앉혀 놓고 하는 수업은 처음이었어 가지고 내가 과외를 무려 10년을 했었는데도 어떻게 이 학생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지, 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업 진도를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 풀이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개념 설명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몰라서 정말 엄망진창이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교원 평가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평가하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당시 2학년이었던 67 기 학생 중의 하나가 익명으로 글을 쓰기를, 이재익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신입의 패기가 느껴진다 라고 평가해 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네.

Q3. 선생님의 교육관 같은 것이 있을까요?

재익T: 내가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기준이라면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학교 친구들은 '재익쌤은 되게 빽빽한 쌤인데?' 라며 의아하겠지. 근데 내가 빽빽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야. 우리가 규칙에 정해져 있는 부분만큼은 지키고 그 외의 부분은 학생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뭘 하든 어떻게 자유 시간을 보내든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보내되 그 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그거 말고는 내가 수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좋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목표로 가르치고 있지.

Q4. 거창고에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나 사건은 무엇인가요?

재익T: 나는 작년 졸업식이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올해 5년째 하고 있는데 앞에 네 번의 졸업식 중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전체 졸업생이 다 참여하는 졸업식이었어. 매번 졸업식 때 보면 재수 학원에 들어갔다거나, 사관학교 훈련에 들어갔다거나, 대학교 OT를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졸업식에 오기 싫어서 빠지는 학생들이 항상 몇 명 있었는데 작년 71회 졸업식 때는 88명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다 참석하는 최초의 졸업식이었다고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너무 보기 좋고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 71회가 3년간의 학교 생활을 다 같이 모여서 마무리하면서 서로 고생했다고 인사하고 다음에 또 보자고 인사 나누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졸업식 때 학생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

Q5. 선생님 간에 재밌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익T: 글쎄. 나는 선생님들이랑 특별히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을 보면서 제일 재밌어하는 부분은 제민 쌤과 종목 쌤의 티키타카. 항상 서로를 이렇게 경쟁하고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면 처음 쌤 타는 관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은 몇십 년을 함께 산 노부부를 보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게 정말 재밌지 않나. 그 와중에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껴울 때 그 불붙는 경쟁 심리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앞으로도 두 분의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

Q6. 거고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익T: 재학생에게는 거고에서의 3년을 정말 잘 즐겼으면 좋겠어. 근데 그 즐긴다는 게 그저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놀 땐 놀고 또 할 땐 하고를 말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려운 거긴 하거든. 사실 놀 때는 다들 신나게 잘 놀아. 우리 학교 친구들 정말 잘 놀지. 저번 봄소풍 때도 보면 정말 미친 듯이 놀더라고. 근데 할 때 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놀 때 놀았던 만큼 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졸업생들은 그런 쉽지 않은 거고에서 3년을 잘 보냈으니까 앞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즐겁게 살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학보사 인터뷰

Q1.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정훈 선배님: 저는 거고 44회 졸업생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보사 편집국장이었습니다.

Q2. 학보사와 관련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주정훈 선배님: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요. 가장 강렬했던 건 저는 면접이었죠. 면접 잊을 수 없죠. 다 똑같습니다. 면접은 잊을 수 없다. 당시 학보사는 면접을 봐야지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강당 있잖아요. 강당 무대 거기에 막을 쳐요. 그리고 선배들은 그 안쪽에 칸칸이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층별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의자 하나 달랑 놓고 면접을 봐요. 일종의 압박면접이죠. 저희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다들 처음에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에피소드가 기억나요.

Q3. 현재 학보사는 기자부, 삽화부, 교정부, 편집부 이렇게 4개의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럼 과거의 학보사는 어떤 부서로 이루어져 있었고,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하나의 기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정훈 선배님: 저 때는 기사를 나눴어요. 글 받아오는 건 누가 하고 이렇게 역할을 좀 분담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정은 1차 교정 전체를 다 같이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삽화 이런 게 없었어요. 대신 인쇄소에 맡겨서 했습니다. 저희는 인쇄소에서 맡겼고 그래서 인쇄소에서 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알려주었죠. 그리고 기사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편집 회의를 해요. 다음 학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럼 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겠어? 같은 것들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을 했잖아요. 이런 거 들어가면 좋겠고 사진을 어떤 식으로 넣을까, 이런 추억거리가 많으니까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전체 회의를 했어요. 마감 기간 정하고 받고 인쇄소 넘기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주면 삽화 이런 건 없었고 이제 거기서 다 해준 거죠. 다 해주고 초안 나오면 저희가 교정하고 그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든 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의 돈으로 만들었네요. 과거 학보사는 전체로 움직이는 추세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었어요. 그 당시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훌륭하고 똑똑하네요. 좀 나눠서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Q4. 마지막으로 현재 거창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주정훈 선배님: 우선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문제고,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든 성실하게 하면 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무작정 하기보다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도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래서 결국은 좋은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괜찮은 시민이 결국은 이 세상도 괜찮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그건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든 돈을 가지든 명예를 가지든 일단 좋은 사람부터 되고 나면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안 가지더라도 내가 내 삶을 괜찮게 살아간다면 그건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는 성공한 삶이 아닐지 본인 스스로 돌아켜 봤을 때 아까 말한 권리, 명예, 돈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좋겠다. 괜찮은 민주시민이 되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사 인터뷰+ interview

Q1. 반사에 대해 질문드리기 전에 간단히 표정숙 선생님을 현재 거창고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거창고와는 어떤 연이 있으신가요?

표정숙 선생님: 네, 저는 거창고등학교 23회 졸업생이고요. 한국신학대학교를 나와서 거창고에서 윤리랑 성경을 쭉 가르쳤어요. 18년 동안 거창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근무했고요. 그 이후에 16년 동안 샛별중학교에서 성경 수업도 하고 도덕 수업도 하고 사회 수업도 했고요. 2014년 2월에 명예퇴직했어요. 그리고 학생 때부터 반사 활동을 했고, 교사로 학교에 다시 온 뒤에도 쭉 반사를 했죠.

Q2. 거창고와 반사에 임하셨던 기간 동안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표정숙 선생님: 뭐 좋았던 기억들은 많지. 일상이 행복했어. 나는 학생들하고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 내 과목 자체가 성적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니까, 야외 수업도 되게 많이 했어. 봄 햅빛이 좋거나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 햅빛이 좋거나 그러면 공동묘지도 가서 수업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샛별초등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에 노는 것도 구경하고. 당시에 선생님들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와서 있잖아. 본관 계단 올라가는데 막 이런 데 와서 엎드려서 숙제하고 있어. 지 아버지 기다린다고 텅굴뒹굴거리면서 놀고 코 찔찔 흘리면서 다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Q3. 반사가 거창고에서 오래전에 없어졌는데요, 학생들을 위해서 반사에 대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표정숙 선생님: 반사는 거창고 학생들이 일종의 교사 즉, 반사로서 섬기면서 시골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야. 옛날 반사는 주일학교 다섯 군데를 운영했어. 월천, 불기동, 신원, 양항, 아주 이렇게 다섯 군데. 여름 방학에는 다섯 군데 다 모아 갖고 샛별중학교를 빌려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었어. 겨울에는 성탄 예배를 하고 여름 겨울엔 반사 수련회를 2박 3일로 한 번씩 했지. 수련회는 덕유산으로 많이 갔고 무주 구천동, 합천 해인사, 지리산으로도 갔어.

Q4. 반사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표정숙 선생님: 주일 학교 아이들은 반사들이 관리를 하고 나는 반사를 관리하는 거지. 그래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서 반사 모임을 항상 했어. 거기서 나는 설교를 하나씩 해줘. 반사 애들에게 주일 학교 설교를 해줘. 그러면 그중에서 주일 예배 설교 맡은 애가 참고를 해서 주일 학교에 가서 설교 해주고. 그리고 반사는 다른 지역에 계시던 선생님 두 분이랑 같이했어. 내가 전체적으로 통솔을 하고 다른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치시고 그런 식으로 했지.

Q5. 마지막으로 현재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표정숙 선생님: 옛날에는 공부 좀 잘하면 서울대 보내고 성적으로 잘라서 다 대학을 보냈거든. 근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관심을 가지고 그쪽 공부도 해서 자기의 미래를 설정해 나가야 해.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고등학생 때가 가장 순수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대해 새로운 눈이 떠지고 가슴이 새롭게 열리고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이기도 한 거지. 그래서 지난친 이상을 추구하기보다는 이상과 실리적인 것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고 얘기해주고 싶거든. 현실을 생각하고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PAGE. 28 ENGLISH
KNIGHTS



INTERVIEW
| 기자 문서연 |

Q1. 잉글리시 나이츠는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나요?

A1. 우리 동아리는 영어 신문 동아리였습니다. 자기가 각자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영어로 신문을 적는 일이 주된 활동이었던 동아리였습니다.

Q2. 잉글리시 나이츠는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어받으신 건가요?

A2. 저는 이어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 학교에 있는 동아리 중에 그래도 꽤 장기인, 10년은 넘은 동아리였어요. 그래도 꽤 전통 있는 동아리였죠.

Q3. 잉글리시 나이츠를 운영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나요?

A3. 저희가 글로우랑 모의 유엔을 해요. 매년 전통처럼 저랑 글로우 짱이 진행해야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의 유엔이다 보니까 글로우 친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진로와 관련된 친구들이 많은데 하필 저희가 둘 다 동아리 일정을 빼서 시간을 맞춰야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미룰 수는 없어서 저희 둘 다 바쁘게 시간을 내서 진행했어요. 근데 하필 딱 첫날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애들 사이에서 저랑 그 짱이 진행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하필 그날 아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 임나가 인원이 많지는 않았는데 글로우가 그때 인원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희가 진로실에서 했는데, 진로실에 사람이 거의 /꽉 차 있고 거기 앞에서 혼자서 진행하고 토론 방향 이끌어야 하고 조도 짜야 했던 그 막막함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좀 같이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혼자 이 인원을 통솔해야 하고. 그 친구가 저보다 진행을 훨씬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진행하면 되겠다’ 했는데, 없어서 어떡하지 싶었어요. 그래도 잘 마무리됐습니다.

Q4.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나요?

A4. 저희가 원래 매년 학기 말에 1학기, 2학기에 쓴 기사를 모아서 자기 신문을 만들거든요. 근데 제가 1학년 때도 못 만들었고 제가 짱일 때도 그걸 못 만든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짱이었을 때는 저희가 2학기 때 기사 말고 좀 다양하게 이제 잡지를 구성해 보려고 소감문이나 칼럼 같은 것도 작성했었는데 아쉽게도 이게 뒤에 동아리 시간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잡지까지 만들지 못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Q5. 잉글리시 나이츠와 비슷한 분야의 동아리를 다시 한번 만들려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나요?

A5. 우선 짱이려면 확실히 그 영어에 관한 관심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비슷한 동아리를 만들어도 어쨌든 영어가 기본인 영어 신문 동아리일 테니까. 근데 그 부원 모집할 때는 좀 타겟을 1학년으로 잡으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 동아리의 장점은 진로가 없거나 진로가 다른 동아리들과 달라도 그거에 끼워맞추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탐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학기 말에 결과를 내면 되니까 천천히 찾으면서 하면 되고. 아니면 진로가 확실한데 이거를 어떤 동아리 안에 나를 가둘 수 없다 싶으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오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너무 영어에 편향적인 활동을 같이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그 다양성 바탕의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하은 선배

그린토피아 인터뷰

소개

설립배경

활동

어려움

조언

총평

| 기자 서예준 |



Q1. 그린토피아는 무슨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나요?

이은채 선배: 그린토피아는 환경동아리인데, 거창고등학교와 거창군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꿔나가자는 취지로 시작한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원들끼리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사소한 것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지역 중심의 활동을 많이 했어요.



Q2. 그린토피아는 처음 만드신 동아리인가요? 설립 배경을 알려주세요.

이은채 선배: 국가에서 진행한 환경 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었어요. 평소에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자 그린토피아를 만들게 되었고, 지원금을 받아서 1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Q3. 그린토피아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요?

이은채 선배: 학교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날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는 이벤트가 있는데 비슷한 걸 우리 학교에서 해보자는 취지로 여름에 에어컨 온도를 1도씩 올리는 캠페인을 1, 2학년에서 진행한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4.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힘들었던 일이 있었나요?

이은채 선배: 아무래도 이런 캠페인은 그런 환경 동아리 내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줄수록 더욱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의 지지를 받는 게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인터뷰

| 기자 강은수 |

Q1. 다음은 어떤 활동을 하는 동아리였나요?

노은빈 선배: 다음은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각 이슈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매체로 표현하고 만드는 동아리였습니다.

Q2. 다음 동아리가 만들어진 계기와 이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노은빈 선배: 저는 2기 짹이라서 이제 1기 짹이신 71기 최민준 선배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음의 뜻이 여러 개 있거든요. 다채로움 그리고 나다움, 너다움 할 때 ‘~다움’, 다 같이 공감해서 울게 된다 해서 ‘다 움’. 이 세 가지의 뜻을 거고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Q3. 다음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노은빈 선배: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재작년에 했던 학교 홍보 영상 제작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엄청 긴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도 했었고 학교 홍보 영상이라는 주제만 가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저희가 콘티랑 스토리를 제작해서 완성까지 하고 신입생들을 위해서 업로드를 했던 그 과정들이 생각이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또 제작 과정에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 1인칭 시점으로 학교를 소개하기라든가 아니면 게임 퀘스트 형식을 편집에 적용한다던가 첫 번째 스토리텔링 형식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표현하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모두 부원들이 다 상의하고 직접 만들고 한 거여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Q4. 지난 다음 활동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은빈 선배: 다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고에서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고에서 지내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시간이 있긴 있었지만 제가 원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뜻이 함께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동아리에서 함께하는 동안 열정적으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 다들 열심히 참여하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던 것 같아서 그 부원들도 또 저도 각자다운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2014.04.16

10주기



Q1.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단원고 2학년 3반 유예은 학생의 엄마, 박은희입니다. 저는 현재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외부에 간담회가 있거나 세월호 관련 모임이 있을 때 참석하여 발언 같은 것을 하고, 또 4.16 예배팀이 있는데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4.16 합창단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2. 그럼 유가족분들은 참사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박은희 전도사님: 초창기에는 세월호 참사를 알리기 위해 많이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거나 왜곡돼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서 직접 알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만들기도 하는 등, 4.16 참사가 어떤 사건이고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데 주력을 다했어요. 그리고 진상규명을 국회나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국회나 청와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그들이 이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압박을 하기도 했어요. 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연극이나 4.16 합창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동하는 이유 중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또 세월호 참사를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저희가 겪은 이 괴로운 일을 이제는 그 어떤 누구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재난피해자 권리센터를 만드는 등 피해자의 권리를 더 생각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은혁 기자 |

Q3.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한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외면이나 비난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박은희 전도사님: 보상금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외면과 비난을 받았어요. 정확히는 저희는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언론에서 보상금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아직 배상에 대한 절차라든지, 액수라든지 그런게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한 날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정말 많은 시민들과 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뉴스에는 이 소식 대신 ‘보상금 관련해서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새빨간 글씨로 하단에 도배가 돼서 나갔어요. 마치 가족들이 자식을 잃었는데 그것을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것처럼 언론에서 몰아갔어요. 인터넷 기사가 나갈 때마다, 댓글이 달리는데 이게 유가족들한테 전혀 걸려지지 않은 채로 노출되기도 하고 또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돈 들어오니까 돈 아껴써라”, “사업을 할 건데 투자 좀 해달라”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요.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묻는 거는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인데, 그것을 계속해서 돈의 논리로 바라보니까 유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초창기 때는 학생들을 어묵에 비유해서 어묵 먹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 단식할 때 바로 옆에서 피자나 치킨을 시켜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한 일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Q4. 10년이라는 오랜시간 동안 활동하시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계속해서 활동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박은희 전도사님: 저희는 아이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폐선을 타고 가게 했는지, 왜 그런 고요한 바다에서 그 커다란 배가 갑자기 넘어갔는지, 왜 구해준다고 온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그냥 떠났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궁금했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저희는 그걸 자꾸 생각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막 자기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과를 갈지, 나는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고 고2 올라갈 때쯤 되면 어느정도 결정을 해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조금은 어른스러워지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쓸던 순간이잖아요. 저는 얘들이 마지막에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무서웠겠지만,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꿈들이 사라져버린 것이잖아요. 그때 느꼈을 그 절망감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그 마지막 순간 궁금해했을 것, 빼앗긴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허망했을 그 마음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을 대신해서라도 저희는 그 질문들에 답을 찾고 다시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런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고 싶어요. 이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도망치고 싶어도 참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Q5. 세월호 참사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는지 한 문장으로 표현 부탁드립니다.

박은희 전도사님: 돈보다 생명. 생명이란 가치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생명보다 돈을 중시해 정부에서 선박 회사들이 짠 배를 가지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에 정부나 국회의원이 무책임하게 대응했던 거예요. 정말 그 생명 하나하나를 나처럼, 아니면 내 자녀처럼 생각했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리 하나 지키고자 그 아까운 생명들에 대해서 경외감이나 그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생명의 가치가 중시되는 이전과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민들레

이동근

별밭 속 물병자리 등지고
흩날렸던 하얀 씨앗 하나
갑작스러운 달싹임에도
이불 되어 덮어준 나의 땅에게,

오선보에 수려하게 핀
검은 새싹들의 풀내음을
차곡차곡 내 주위로
은은하게 심어주던 나날들
양분 삼아 그린나래 달고
천천히 시나브로 움튼 나

그대만의 동백꽃 되기 위해
섣불리 세운 수많은 이정표
성게 가시처럼 돋쳐버려
서툰 흉터만 새기었다

길을 잊은 채 막연히 킨 촛불
어둑한 안개 자욱한 거리
얼마나 혜매었을까 깨달을 무렵
발견한 짧아진 초 탁한 눈물들
익숙한 듯 담담하게 굳어있다

뒤늦은 노오란 꽃 비애의 개화
김 서린 창에 적힌 손글씨처럼
아무 일 없던 듯 흐려질지라도

수십 년에 한 번꼴 피어오르는
오월의 개기일식이 그러하듯이
작은 태양 위 흰 불꽃놀이 터뜨려
이슬 맺힌 목화 한 송이 건네리라

편집부 : 김하진 공민혁 신은혁 김산이 조세빈 윤중석 곽찬
교정부 : 박윤호 백예정 최서윤 서동주 박서현 신예서 진유준
삽화부 : 김태민 천효영 안도연 정세빈 장수아 주연서
기자부 : 이지훈 곽진현 조하성 여수아 서예준 강은수 문서연



거창고등학교
학보사